

‘Infection and Chemotherapy’ 영문학회지로의 전면전환에 앞서

정희진

Infection & chemotherapy 편집장,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Infection and Chemotherapy, prior to a Thorough Change-over to English Journal

Infection and Chemotherapy is a joint-journal newly born in 2003, extensively integrating two journals, Infection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and Chemotherapy by the Korean Society of Chemotherapy. Infection and Chemotherapy, which maintained its character as a Korean Journal, even though published in a Korean and English mixed format, will switch its gears to an English journal, closing with the last edition volume 44, issue 6, published in December 2012. Prior to our changeover to an English journal, this column has been set aside to take our leave of the past by looking back through the history of our journal.

2012년 12월, 제 44권 6호를 마지막으로, 한영문 혼용으로 발행되어왔지만 사실상 국문학술지의 성격을 유지하였던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그 발행을 마감하고 2013년부터는 영문학회지로 전면 전환된다. 물론, 학회지 이름, 학회지 권, 호수 ISSN 번호 등 모든 것을 계승하여 영문지로 전환되지만 우리 학회지에서 더 이상의 한글논문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수년간 학회지 발행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허전함과 서글픔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거짓일 것이다. 우리글로 쓰여진 국문논문을 읽는 기쁨은 아무리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일지라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하여왔을 것이고 아무리 영문으로 잘 표현한다 할들 맛깔나는 우리글을 통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도에 비길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영문 혼용이라는 과도기를 지나 영문학회지로 거듭나기에 앞서 영문지전환이라는 결정이 비단 우리학회를 SCIE, SCI 등재잡지로 진보시키기 위한 시대적인 결정인 것 만은 아닌지 여러 학회 중진 및 회원들과 의논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가 살고있는 현재는 그야말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것이 전세계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사회이고 가장 소통이 원활한 문자를 이용한 전세계와의 소통은 그 자체가 국내 감염학의 발전을 위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학회지에 실린 우리 연구결과를 전 세계인이 읽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 감염학의 발전에 물푸레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긍정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 아쉽게도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한글’이 아닌 ‘영문’인 것이 지금의 현실일 뿐이라 생각한다.

우리학회의 전면 영문전환에 앞서 지난 시절을 마감하며 우리학회의 역사를 간단히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기에 본 지면을 빌리기로 하였다.

Hee Jin Cheong

Editor in Chief, Infection and Chemotherap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12 by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Submitted: December 10, 2012

Accepted: December 10, 2012

Correspondence to Hee Jin Cheong, MD, PhD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uro-dong, Guro-gu, Seoul 152-703, Korea

Tel: +82 2 2626 3050, Fax: +82 2 2626 1105

E-mail: heejinmd@korea.ac.krwww.icjournal.org

'Infection and Chemotherapy'는 1969년 이래 대한감염학회에서 발행하던 『감염』지와 1983년 이래 대한화학요법학회에서 발행하던 『대한화학요법학회지』가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2003년에 새로이 탄생한 양 학회의 공동학술지이다[1, 2]. 이렇게 7년간 '감염과 화학요법(Infection and Chemotherapy)'으로 발행되던 학술지는 2010년 국제학술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학회지 제목에서 국문명 『감염과 화학요법』을 삭제하고 영문명 'Infection and Chemotherapy'로 전환하게 되었다. 아울러 학회지 표지 및 내지 디자인 및 형식, 투고규정 등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는 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ubmit.icjournal.org>)이 도입되어 논문 투고와 관리에 보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동시기에 역대 학회지에 실린 모든 논문들을 웹사이트에서 원문 확인할 수 있도록 학회지 홈페이지(<http://www.icjournal.org>)도 함께 개설되었고 eISSN을 부여 받아 온라인 출판물로도 인정받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한국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KoreaMed Synapse를 통하여 각 논문마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 받아 세계 어디서나 쉽게 논문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독자들이 논문을 자유롭게 읽고 인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잠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회지에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였던 우리 학술지는 사소한 실수들로 인하여 2007년 등재후보지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8년 등재후보지에 재등록되었고, 2010년 등재후보지 1차 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2011년 2차 평가를 통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2010, 2011년에 걸쳐 SCOPUS, CAS (Chemical Abstract Service), CABI (Commonwealth Agricultural Bureaux International) 등에 국제색인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Infection and Chemotherapy'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학회지는 체계와 외형적인 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보다 국제화된 형태로 진일보하여 국제학술지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다[3].

그렇다면 우리학회지에 실린 논문 분야의 다양성이나 논문의 질 역시 과거에 비해 더욱 발전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적인 답

을 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우리학회지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발행 학술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국내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업적평가 기준에서 국제학술지 등재논문의 수와 인용지수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학술지로 양질의 논문이 몰리는 현상이 생겨났고 해마다 늘어나는 국내 관련학회지의 수적 증가에 따라 연구자들의 논문 투고의 대상이 다양해졌다는 것들이 그 대표적인 원인이다.

2003년 통합학술지로 거듭나면서 우리학회지는 재도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학회지에 투고·개제된 원지의 수는 2003년 44편에서 2008년 19편까지 줄어들었고 그 이후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여전히 가뭄현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공백을 겨우 종설과 증례보고가 채우고 있다(Fig. 1). 우리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Koreamed에 등재된 타학회지에 인용되는 지수인 KOMCIIIF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Impact Factor) 값 역시 2006년 0.148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0.3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아쉬운 수준이다[4] (Fig. 2).

그러나, 최근들에 학회지에 개제되는 논문 분야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관찰되고 있다. 여전히 항생제 및 내성관련 연구 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감염역학, HIV를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 면역저하자 감염, 의료관련 감염 등으로 논문 분야가 확대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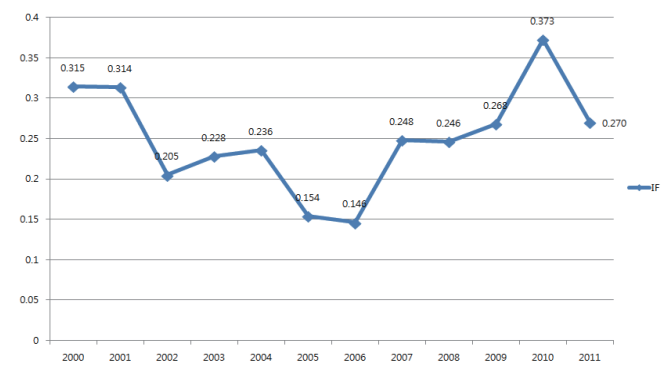


Figure 2. Time-trends of KOMCIIIF impact factors of published papers in 'Infection and Chemotherapy'.

^aKOMCII: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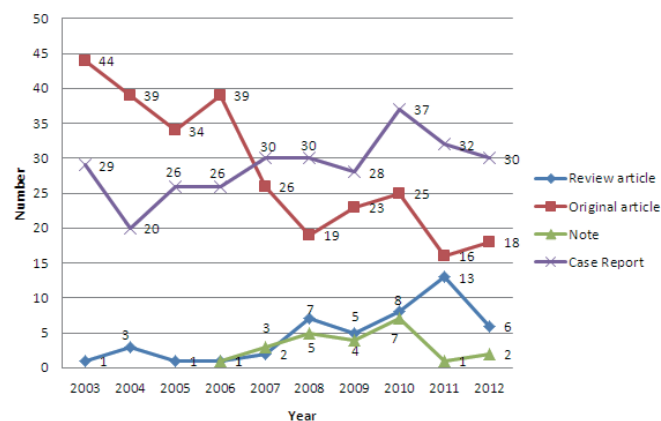


Figure 1. Published papers in 'Infection and Chemotherapy' (2003-2011). Numbers of original articles are declining since year of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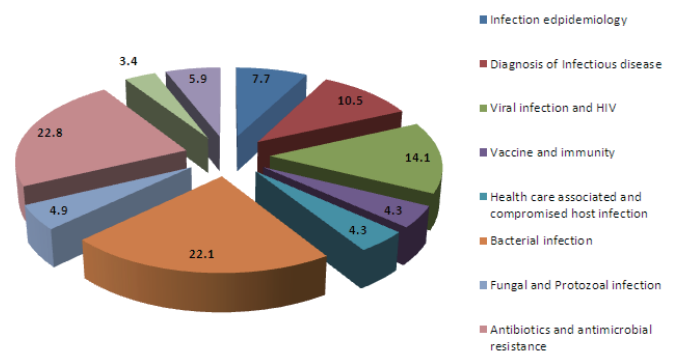


Figure 3. Proportion (%) of published papers in 'Infection and Chemotherapy' according to categories. Papers regarding 'Antibiotics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are main filed of papers in 'Infection and Chemotherapy'.

(Fig. 3) 국내의 감염학 관련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우리학회지에 소개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우수한 국문논문을 게재하는 국문학술지도 그 상태로는 더 이상 국제학술지로 등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 영문학술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수한 국문학술지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시대환경이 우리학회지의 영문전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학회지의 국제화를 통하여 국내의 감염학 연구자료를 전세계의 보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우리학회지에 소개됨으로서 국내연구자들에게 또다른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향후, 우리학회지에 투고되는 양질의 논문이 더욱더 많아져 'Infection and Chemotherapy'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문학술지도 다시금 병행발행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History of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 50 years. Seoul: Jin Publishing Co.; 2011.
2.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History of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50 years. Seoul: Koonja; 2008.
3. Cheong HJ. Infection and Chemotherap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 & the Korean Society for Chemotherapy. Science Editing 2012;1:78-9.
4. 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Available at: <http://journal.komci.org/ViewJournalInfo.php?IID=7583>. Accessed 9 December 2012.